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85호 【루계 제25428호】 주체105(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조선로동당창건 71돐을 맞으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았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혁명의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열화같은 경모의 정에 넘친 군중들의 물결이 만수대언덕으로 끝없이 굽이쳤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씌어져있었다.

군중들은 비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건설하시고 준엄한 력사의 폭풍우속에서 혁명과 건설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어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들에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일군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동 지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조선로동당창건 71돐에 즈음하여 수리아아랍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그리고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면서 당신께서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며 성과를 거두실것과 아울러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뜻깊은 계기에 즈음하여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관계가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앞으로 더욱 공고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원수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

2016년 10월 10일 다마스끄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 정 은 각 하 께

존경하는 김정은각하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숭고한 덕망으로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조선의 절세위인들을 칭송하기 위한 지역 및 나라별준비위원회들을 대표하는 저희들은 인도네시아의 자까르따에서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가 결성된데 대하여 각하께 알려드리는 영광을 지닙니다.

2017년에 조선인민은 백두산위인으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을 받고계시는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105돐, 김정일각하의 탄생 75돐, 김정은각하께서 조선의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5돐을 커다란 기쁨속에 맞이하게 됩니다.

2017년의 뜻깊은 명절들을 인류공동의 경사로 성대히 경축하는것은 영웅적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성원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으로 되고있습니다.

하기에 지금 세계적판도에서 6개 지역준비위원회를 비롯한 70여개의 준비위원회들이 조직되여 다채로운 활동을 벌리고있으며 오늘은 김일성주석각하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 방문하시고 태양의 꽃 김일성화가 태여난 인도네시아에서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가 결성되였습니다.

저희들은 2017년의 경사스러운 명절들과 특히 백두산위인칭송대회가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자신의 고귀한 생애를 다 바치신 절세위인들께 최대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께서 인류사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의의있는 계기들로 되도록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각하

저희들은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위업이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변함없이 계승되고 전면적으로 구현되고있는데 대하여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속에서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위협에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은 각하께서 펼치시는 자주와 선군, 자강력제일주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저희들은 각하께서 계시여 조선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이 승리적으로 진척되고 세계자주화위업도 줄기차게 전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는 백두산위인들의 위대성과 업적을 길이 전하며 빛내이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입니다.

저희들은 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표하면서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번영과 조선의 통일을 위한 고귀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결성식참가자일동

2016년 10월 6일 쟈까르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공화국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 바레인왕국 국왕,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대통령, 따쥐끼스딴공화국 대통령,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국가수반, 케냐아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또한 인디아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칠레맑스-레닌주의혁명당, 빠라과이공산당 중앙위원회, 네팔공산당(련합) 중앙위원회 위원장,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지도자, 레바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레바논근로자련맹 총비서, 말레이시아 전국말라이통일당 총비서, 말레이시아중국인당 총서기, 몽골인민당 총비서대리, 수리아아랍민주동맹당 총비서와 부총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 수리아알 아흐드 알 와타니당 총비서, 수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 총비서, 캄보쟈의 크메르민주당 위원장, 캄보쟈룬씬뻬크당 위원장, 팔레스티나해방민주주의전선 총비서,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총비서, 끼르기즈스딴아알람당 지도자,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위원장과 총서기, 인도네시아다양성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므니아 새 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공산당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 중앙위원회 위원장, 로씨야민족구국전선 위원장, 로씨야자유민주당 위원장,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마자르로동당 위원장, 벨라루씨공산주의자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벨라루씨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스위스공산당 총비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스꼬공산당-21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스꼬 체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과 국제비서,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와 국제비서, 뽈스까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전국지도자,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이딸리아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아프리카민주련합-기네민주당 총비서대리,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위원장, 민주꽁고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총비서,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에싈트민족진보통일련합당 위원장, 에싈트민주동맹당 위원장, 에싈트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 에싈트인민전선당 위원장, 도미니까통일된 좌익운동 총비서,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베네수엘라 뚜빠마로혁명운동 전국지도부 총비서, 카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제1비서, 우루과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제비서, 우루과이3월26일운동 위원장, 베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과 총서기, 자유두표동맹을 위한 베루민족독립운동 위원장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또한 쿠웨이트국가 추장 계승자, 까타르국가 부추장, 까타르국가 내각 수상겸 내무상,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 이란이슬람교련합당 부총비서, 카나민족민주대회 부총비서, 에싈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아까데미야협주단 단장과 부단장, 이딸리아종합무자그를 리사장, 유엔사무총장,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총국장, 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 국제반제조정위원회 총서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부리사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들,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로씨야련방 하바롭스크변강 장관, 하바롭스크시장을 비롯하여 로씨야, 중국, 꾸바, 네팔, 레바논, 말레이시아, 먄마, 몽골, 방글라데슈, 수리아, 스리랑카, 싱가포르, 캄보쟈, 쿠웨이트, 타이, 파키스딴, 팔레스티나, 까타르, 오만, 이란, 인도네시아, 인디아, 일본, 웰남, 노르웨이, 단마르크, 도이췰란드, 로므니아, 벨가리아, 스위스, 스웨데예, 슬로베니아, 체스꼬, 프랑스, 핀란드, 뽈스까, 오스트리아, 영국, 이슬란드, 이딸리아, 기네, 나이제리아, 니제르, 리비아, 말리, 베닌, 세네갈, 잠비아, 챠드, 탄자니아, 꽁고, 민주꽁고, 튜니지, 알제리, 앙골라, 우간다, 에싈트, 에티오피아, 메히꼬, 브라질, 저메이커, 칠레, 꼴롬비아, 빠나마, 베루, 아르헨띠나, 에꽈도르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켜오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선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달성하였다고 그들은 지적하였다.

그들은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늘 또 한분의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일대 번영기를 맞이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에서 축전을 보내여왔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71돐을 맞으며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0일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림상앞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림상에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림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어져있었다.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혁명적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우리 당과 혁명을 백승에로 이끄시여 민족만대의 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림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칭송과 뜨거운 흠모의 정이 어린 혼장보존실들과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존엄과 불패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위대한 력사와 더불어 그 업적 길이 빛나리

당창건기념일을 맞이한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위대한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과 충정의 마음이 강산에 뜨겁게 굽이치는 당창건기념일.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고있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200일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맞이하는 당창건기념일이여서인지 태양의 성지를 찾는 사람들의 가슴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으로 가득차있었다.

태양의 축복이 넘쳐흐르는 이곳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천만군민은 확신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력사에 또 하나의 불우리로 빛날 200일전투승리의 그날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이 꽃필 최후승리의 그날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이고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이며 승리의 상징입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들어서니 앞을 다투어 피여난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였고 물기를 머금은 잔디들이 푸른 주단을 펴놓은듯 입매지게 펼쳐져있었다.

전나무, 분비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키높이 자란 나무들,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염쳐가는 맑은 물우에서 노닐고있는 고니, 기러기, 물오리들…

하지만 태양의 성지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것은 그 수려한 풍치만이 아니였다.

지금도 그려보느라면 해방산기슭의 수수하고 소박한 청사에서 당창건을 선포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어려오고 우리 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은 금수산태양궁전,

여기 성지의 모든것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전해주는듯싶어 누구나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진정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존엄높은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오늘을 생각할수 없고 자주롭고 정의로운 백강국으로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 우리 인민이 아닌가.

력사의 준엄한 령마루마다에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기치가 펄펄 휘날리게 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린 사람들속에서 우리는 조선인민군 군관 장성남동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고보니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온 세상에 과시한 지난 9월의 핵뢰성이 지금도 들리는것만 같습니다.

당당한 핵보유국의 위용을 만방에 과시한 조선민족의 대경사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보시였다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습니까.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 선군정치를 총대로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이 땅우에 기어이 실현하려는것이 조국방선을 지켜선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철석같은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돌이켜보면 조선로동당은 70여년의 장구한 기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이끌어왔다.

얼마나 간고하고 시련에 찬 나날이였던가.

모든것을 빈터우에서 시작해야 하는 새 조국건설과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 재대미우에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시던 나날 우리 수령님의 심중에서는 백두의 눈보라가 끊임없이 폭풍쳤다.

우리 인민을 또다시 예속시키려 강요된 전쟁의 불구름, 정치군사적위협과 간섭, 봉쇄와 핵공갈…

우리 조국이 지배와 예속의 광풍을 쳐잘기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성새로 우뚝 일떠설수 있게 된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건지하신 철저한 자주로선의 위대한 승리였다.

그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불비쏟아지는 전선의 용사들을 찾아 어둠에 잠긴 철다리의 침목우로 차를 달리키도 하시고 때로는 눈덮인 고개길에서 미끄러지는 차를 밀고오르키도 하시였다. 평범한 과학자의 과학적신념을 애국의 길에서 보석처럼 빛내여주시였고 때로는 지난날 지지리 고생속에 살아온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나라의 주인된 자각을 심어주기도 하시였다.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찾으시며 우리 당의 철저한 자주로선관철에로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신 수령님의 령도아래 이 땅에는 얼마나 위대한 전변의 서사시가 새겨졌으며 우리 인민의 삶과 투쟁에서는 또 얼마나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던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온 가족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온 대성구역에서 살고있는 현은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도 때없이 선군이라는 말을 외울 때면 우리 장군님 생각으로 격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세상에 인민을 위한다는 령도자나 정치가는 많았어도 우리 장군님처럼 인민을 그토록 열렬하게, 그토록 고결하게 사랑하신 령도자, 정치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우리 인민은 선군의 한길을 따라 행복이 온다는 말을 노래로 부르고있다. 선군과 행복이라는 말속에는 눈물겨운 만단사연이 얼마나 뜨겁게 어려있는것인가.

선군, 그 길은 참으로 험난한 가시덤불길이였다. 력사의 초행길이여서, 가슴아픈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길이여서만이 아니였다.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던 조국과 인민이 겪는 고통을 자신의 온몸으로, 온넋으로 느끼시던 우리 장군님의 심중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그이께서 수십년간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며 어머니의 품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자그마한 불편도 당의 크나큰 아픔이였고 그것은 잠시도 미룰수 없는 제일중대사였다.

형언할수 없는 고뇌를 한가슴에 안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지만 절단코 선군의 의지를 더욱 굳히시였다.

전후 대국주의자들이 세브에 들것을 강요하고 종파놈들이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고 시비할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력한 기계공업을 창설하시여 기계에서 쌀도 나오고 천도 쏟아지는 자주의 성새를 일떠세우시지 않았던가.

제국주의메무리가 달려들면 바로 그때에는 선군의 총대에서 쌀이 나오고 천이 나와야 했다. 선군으로 자주적인민의 존엄을 지켜주시려 피눈물을 삼키시며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 신념과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였고 피나를 건느시며 달리는 야전차에서 폭잠에 드신 우리 장군님.

자신을 광그리 불태우신 우리 장군님의 천신만고는 강국건설의 새시대, 행복의 려명이 라오르게 한 뜨거운 불씨였고 성스러운 불길이였다.

참으로 선군정치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였다. 나라의 운명이 관가리되던 최악의 시련속에서 어머니당의 붉은 기폭은 더욱더 뜨거워지는 인민사랑으로 더 붉게 물들어졌다.

당을 진정 운명의 등대로, 어머니로 믿고 따르는 인민의 신념은 반석으로 다져졌고 이 땅우에는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펼쳐졌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그대로 이어지고있다고 하면서 륙해운성 대동강갑문관리국에서 일하는 차정웅동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온 나라를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부른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던 때의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려명거리완공의 환희보다도 피해지역 인민들의 새집들이소식을 몇천배로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 당이 어떤 당인가를 다시한번 절감하였습니다.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로 이어지는 우리 당의 진일보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싶은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바로 그래서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위훈을 창조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릴 마음과 마음들이 태양의 성지로 끝없이 흐르고있는것이리라.

시간이 갈수록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흘러들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당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혁명의 수령이 어떻게 인민과 더불어 영생하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열심히 배우고배워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과학기술강국을 일떠세우는 길에서 조국앞에 지닌 영예로운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인 리경수, 엄금성동무들의 결의가 힘있게 흘러였다.

이것이 어찌 그들만의 심정이겠는가.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에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은 사람들 이니 언제나 태양의 성지에 마음을 얹고사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끓고있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이리라.

정녕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인민은 당을 위대한 어머니로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혈연의 뉴대를 억세게 다져주는 태양의 성지이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나서며 우리는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백두산대국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상징하는 최후승리의 려명은 인민의 마음에서부터 붉은 노을빛으로 라오르고있다는것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승리떨칠 우리 조국의 미래를 축복하신다.

세계는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우리 인민의 힘과 슬기를 총폭발시켜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국을 어떻게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한 영 민
사진 본사기자 리 명 남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가 결성되였다.

결성식이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와 인도네시아준비위원회의 공동명의로 6일 인도네시아의 쟈까르따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결성식장정면에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결성식장에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결성식에는 아시아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랍지역과 나라별준비위원회 대표들, 인도네시아의 각계 인사들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조선준비위원회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주악으로 시작된 결성식에서는 6개 지역과 50여개 나라에서 70여개의 준비위원회가 결성된데 대하여서와 지역 및 나라별준비위원회들에서 국제준비위원회 결성식에 보내여온 축전과 축하편지가 소개되였다.

결성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력사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처럼 특출한 령도실력과 숭고한 인품을 지니시고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대중의 자유와 해방,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바치신 위인들은 일찌기 없었다고 하면서 자주시대를 개척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인류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선군의 위력으로 단호히 물리치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련이어 창조하고있는 조선의 현실을 통하여 세계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따라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조선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절감하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김정은각하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한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경사이라고 격찬하였다.

주체조선의 선군태양은 사방과 예지, 정의와 자주의 눈부신 빛발로 온 세계를 밝혀주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김정은각하께서 계시기에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께서 이끌어오신 세계자주화위업은 더욱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인류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가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는 진보적인류의 국제적인 대회합으로 훌륭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결성식에서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진행과 관련한 문제, 앞으로 대회를 백두산위인칭송축전으로 정례화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수를 밟히며 백두산위인칭송비를 백두산에 건립할데 대한 문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며 당면하게는 조선의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사업을 적극 협조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결성식에서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들로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마다브 꾸마르 네팔 전 네팔정부 수상이, 공동위원장들로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 조선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숙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쏘꼬호 고메스 세계평화리사회 위원장, 라흐마와띠 수카르노뿌뜨리 인도네시아 수카르노교육재단창립위원회 위원장, 피터 우즈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히모리 후미히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의장, 기 듀프르 프랑스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페드로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아셀리누 리베이루 김정일평도자회고 브라질위원회 위원장, 다미안 오그본나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아호야 자카리야 헤이를라 에짚트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 선출되였다.

또한 국제준비위원회 결성을 축하하는 조선준비위원회대표단 단장의 연설에 이어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결성식에서 채택되였다.

결성식은 혁명송가 《김정은장군찬가》의 주악으로 끝났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2017년은 조선의 자유독립과 부강발전, 인류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105돐과 김정일각하의 탄생 75돐,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각하의 위업을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각하께서 조선의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주체와 선군으로 자주성실현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탁월한 령도와 숭고한 덕망으로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전진시켜오신 최세의 위인들이시다.

김정은원수각하께서는 탁대한 배짱과 강철의 의지, 인민사랑의 정치와 세련된 령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반제자주력량의 강력한 보루로 튼튼히 다져나가고계신다.

하기에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 모두가 조선의 상징이고 기상인 백두산과 더불어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각하, 김정은각하를 백두산위인으로,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그분들의 존함과 업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고있다.

조선인민과 함께 2017년의 경사스러운 명절들을 경축하기 위한 지역 및 나라별준비위원회들을 대표하고있는 우리들은 오늘 인도네시아의 쟈까르따에서 국제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국제적회합인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를 김일성주석각하의 조국해방업적과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다음해 8월에 조선의 백두산과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들은 자신들이 맡고있는 책임과 본분을 다시금 자각하면서 세계의 모든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준비위원회들과 진보적인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2017년의 뜻깊은 명절들에 즈음하여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국제적인 경축활동들을 활발히 벌려 위인칭송의 분위기를 고조시키자.

2017년은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백두산위인들의 혁명생애와 위대성을 칭송하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과 국제민주단체, 각국의 진보적인사들의 활동에서 분수령을 이루게 될 뜻깊은 해이다.

다음해 1월 김정은각하의 탄생일을 성대히 경축하며 광명성절과 태양절에 이어 김정숙녀사의 탄생일을 맞는 12월까지 다채로운 정치문화활동들을 활발히 벌려 2017년 온 한해를 경축분위기로 끓어번지게 하자.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를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열렬한 흠모심을 더치는 위인칭송의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이자.

2. 백두산위인들의 위대한 업적을 세기를 이어가며 온 세상에 전하고 빛내이자.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위업은 오늘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드팀없이 이어지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진정한 국제적정의가 실현된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을 위한 진보력량의 앞길을 선도하고있다.

백두산위인들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 숭고한 덕성을 높이 칭송하며 조선의 현실을 소개선전하는 도서와 문예작품들을 집필, 창작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나가자.

우리들은 백두산위인들의 위대성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며 길이 전해가려는 진보적인류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조선의 백두산지구에 백두산위인칭송비를 정중히 건립하자는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3.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활동을 세계적판도에서 광범히 벌려나가자.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속에서도 반제자주적립장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백두산대국으로 위용떨치는 현대조선의 력사와 현실은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의 귀감으로 되고있다.

력사적인 북남합의들을 리행하여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자.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막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자.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외세에 의한 항시적인 전쟁위협속에서도 나라의 북부지역이 수십년만에 처음 보는 큰물피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국가적인 중요대상건설들을 즉시 중단하고 군대와 인민을 비롯한 모든 력량을 피해지역 복구사업에 총동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시하는 조선의 당과 정부가 위한 중대결단으로 되며 세계는 머지않아 조선의 북부지역에서 인민사랑의 정치가 낳게 되는 또 하나의 세기적인 기적을 목격하게 될것이다.

당면하여 우리들은 이 기회에 세계 모든 나라의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과 정부 및 비정부적단체들, 각계 인사들이 조선의 북부지역 피해복구사업에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적이며 성의있는 지원과 협조활동을 적극 벌릴것을 호소한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는 지역 및 나라별준비위원회들과 각국의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 국제민주단체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뜻깊은 2017년을 향한 국제적인 경축활동들과 백두산위인칭송대회의 성과적진행을 위한 준비사업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2016년 10월 6일 쟈까르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캄팔라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쎄베니각하

나는 우간다독립 54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10월 9일 평 양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위력한 당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며 백승의 위력을 떨쳐가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가 외국의 벗들속에서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벨지끄지부 대표 잔 카씨에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과 전도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에 달려있다.

조선로동당은 오랜 력사적기간 준엄한 시련을 헤치며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을 일떠세우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놓았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속에서도 자주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가는 조선의 현실은 조선로동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조선로동당이 좌절과 실패를 모르고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전진시켜올수 있은것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당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기때문이다.

세상에는 조선로동당처럼 탁월한 령도자들을 높이 모시고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온 혁명적당은 없다.

조선로동당을 강철의 당으로,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및 조선통일지지 아랍위원회 위원장 마르완 쑤다흐는 조선로동당의 귀중한 경험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류를 무한히 고무해주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당들의 본보기, 유일한 희망의 등대이다, 인민을 이끌어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해가는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정의의 위업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말하였다.

수리아 티마스끄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싸베르 발룬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가고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각하는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위대한 력사와 전통이 굳건히 계승되는 당은 필승불패이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가장 가혹한 시련속에서도 수령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나아가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위력에 찬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을 영원한 승리에로 향도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광란하는 날바다에 조국번영의 터전을 다진 자강력제일주의의 자랑찬 승리

홍건도간석지 1단계 건설투쟁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천만군민이 적대세력들의 발악적도전을 짓부시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두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인 련전련승을 이룩해가는 격동의 시기에 조국의 서해가에서 대자연개조의 승전포성이 장쾌하게 울려퍼졌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 당의 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굴지의 대제도간석지와 파산간석지 2계단 건설에서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으로 홍건도간석지 1단계 건설을 완공함으로써 총정의 200일전투기록장에 새로운 만리마시대의 자랑찬 위훈을 아로새기였다.

대규모의 간석지건설이 불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결속됨으로써 동림군 안산리와 선천군 서화리사이에 있던 섬들인 큰 순례도, 대삼곶도, 작은 배록도가 수십리제방으로 련결되여 4,500정보의 드넓은 간석지가 풍요한 사회주의대농장으로 솟구쳐올라 조국의 지도가 새롭게 변모되였다.

눈뿌리 아� 벼이나간 방조제를 따라 동림군과 선천군을 잇는 통환선도로가 형성되고 간석지에 일망무제하게 펼쳐진 푸르른 전야와 양어장, 양식장들이 그림같이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을 이루었다.

광란하는 날바다에 조국번영의 터전을 튼튼히 다진 이 거창한 변혁은 조국강산을 살기 좋고 후손만대 번영할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과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당이 안겨준 자강력제일주의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세상에 보란듯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정신이 안아온 기적적승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간석지개간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부침땅을 늘여야 합니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간석지건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고 당의 구상을 받들어 후손만대의 행복의 터전을 넓혀나가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다.

파도사나운 서해의 바다길을 헤치시며 간석지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79(1990)년 11월 동림군 안산리로부터 선천군 신미도까지 여러개의 섬을 련결하는 홍건도간석지를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드시여 홍건도간석지를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한 대자연개조전투를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건설자들이 파산간석지 2계단 건설공사를 끝내고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동지들의 불굴의 정신과 혁혁한 성과를 당중앙은 높이 평가합니다. 김정은 2012.4.27》**라는 친필을 보내시여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 뜨락에 이어놓고 당의 사상과 위업을 충정다해 받들어가는 그들에게 무한대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홍건도간석지건설을 다그쳐 끝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길음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대비약, 대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마다에 간직한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대계도기적창조자의 본때를 다시한번 떨쳐갈 기상안고 2012년 9월 6일 6만산발파로 홍건도간석지건설착공의 힘찬 폭음을 울리였다.

홍건도간석지 1단계 건설은 500여만㎥의 막돌과 토량으로 수십리 날바다를 가로막고 40여만㎡의 장석을 쌓아 만년제방을 일떠세우기 위한 자연과의 대격전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홍건도간석지건설에서 로동당시대 대자연개조의 새 기적을 안아올 결사의 각오안고 건설자들은 시작부터 끊임없는 혁신을 창조해나갔다.

종합기업소에서는 당, 행정, 기술일군이 3위1체가 되여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며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전투조직과 지휘를 화선식으로 짜고들었다.

공사의 첫 공정인 막돌과 토량을 보장하기 위한 과감한 돌격전이 벌어졌다.

장송, 다사, 보산, 서화, 로하, 파산간석지건설분사업소와 다사, 청강기계화분사업소, 신의주간석지부세분공장, 선박분사업소 등 모든 단위들에서 채석전투에 력량을 집중하여 공사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갔다.

수십차례의 대소발파로 많은 막돌과 토량이 마련되는 속에 안산, 서화지구의 두개 전선에서 1호, 4호방조제가 날마다 시간마다 눈에 띄게 쪽쪽 뻗어나갔다.

혁신의 불길이 타번지는 전투장마다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신념의 구호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가 승리의 기치로 나붓기고 붉은기들이 전진하는 방조제들에 거대한 숲을 이루며 펄펄 휘날렸다.

지력자강의 정신으로 만난을 헤치며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갈 불굴의 의지로 만장약된 건설자들은 하루에 최고 700차분의 막돌과 토량으로 120m이상 제방을 내밀며 2012년 9월 1호방조제 1차물막이공사를 한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마무리하였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속에 홍건도전역에서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방조제들이 련이어 솟구쳐올랐다.

방조제의 전진속도가 빨라지는데 맞게 전투현장에 수리기지들이 신속히 전개되고 자동차운전사들과 굴착기운전공들은 한㎥ 더 싣기, 한차 더 뛰기운동을 맹렬히 벌리며 사름치는 바다길이에 조국번영의 기초를 억척같이 다져나갔다.

2012년 12월말 4호방조제가 길은 감탕층을 밀어내며 하루밤사이에 수십m나 쩌져내려갔다.

수십, 수백차분의 돌과 흙을 쏟아넣어도 순간에 그 모든것이 깔깔이 날뛰는 바다물속으로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시련과 난관이 중첩될수록 건설자들은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으로 천만산악도 단숨에 허물어 바다를 메워갈 의지안고 령하 수십℃의 강추위속에서도 집중투석, 련속투석에 의한 공법으로 철야전을 들이대여 제방을 억척같이 보강해나갔다.

방조제를 지켜내기 위한 백열전의 하루낮, 하루밤은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들앞에 불가능이란 없음을 다시한번 똑똑히 실증해주었다.

제방침하현상이 심해지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건설자들은 전인류발의 투쟁을 벌려 2013년 1월 1일 1호방조제공사량의 근 3배나 되는 4호방조제 1차물막이공사를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횡포한 자연을 깔들이는 바다의 정복자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은 2호방조제공사에서도 높이 발휘되였다.

수천m구간의 날바다를 가로막는 치렬한 전투에서 건설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력갱생의 선구자단위로 내세워주신 기업소의 위력을 떨치며 토량이 수십만㎥에 달하는 방조제를 몇달동안에 쌓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공사속도는 2배, 3배로 뛰여올라 2013년 6월 2호방조제 1차물막이공사가 끝나는 혁신적성과가 이룩되였다.

건설자들은 1차물막이공사에 이어 방조제보강공사도 동시에 밀고나갔다.

바다물에 의한 제방류실과 지반패임현상을 없애기 위한 방안들과 미세기차를 리용한 독특한 공법들이 창안되여 건설자들의 투쟁열의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 과정에 방조제량쪽에서 진행하던 기존공법이 아니라 물전기재들과 중기계들을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법으로 수백m의 개펄구간도 단숨에 극복하였다.

1, 2, 4호방조제 1차물막이공사를 와닥닥 끝낸 기세로 건설자들은 2013년 10월부터 3호방조제공사에 진입하였다.

홍건도간석지 1단계 건설의 1차물막이를 마감지어야 하는 이 전투는 총공사량의 70%나 되고 최종마감막이를 위한 바닥보강공사량만도 12만㎥나 되는 매우 어렵고 방대한 전투였다.

대계도간석지와 파산간석지 2계단 건설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우리 식 공법들에 토대하여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3호방조제 1차물막이공사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3호제방이 들어앉게 될 수역의 지질도가 작성된데 따라 마감막이공사에 대한 기성리론이 타파되고 최종마감막이구간의 바닥보강을 1년이나 앞세워 선행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제방성토공법이 창안도입되였다.

과학기술로 자연의 온갖 도전을 깔들이려는 자력자강의 창조정신이 세차게 분출되는 속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광범하게 벌어졌으며 간석지설계연구소, 국가과학원간석지연구소, 함흥수리동력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의 적극적인 방조밀에 수십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되여 공사를 힘있게 추진하였다.

마감막이구간이 점점 좁아지는데 따라 공사조건은 갈수록 악화되였다.

2015년 9월부터 진행된 최종마감막이전투는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의 자력자강의 창조정신, 과학기술의 위력과 광란하는 자연과의 가장 치렬한 대결전이였다.

좁아지는 폭우와 세차게 불어치는 태풍으로 사나운 파도가 방조제를 들이쳐 시간을 다투며 쪽쪽 뻗어나가던 방조제는 300m의 마감막이구간을 앞에 두고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였다.

바다물흐름이 전부 3호방조제쪽으로 쏠림으로써 밀물과 썰물때마다 초당 6~7m의 속도로 방대한 량의 바다물이 드나들며 제방을 사정없이 허물어버렸다.

피타는 노력으로 한치한치 쌓아올린 제방이 감탕층에 의해 순간에 물러앉아 제방아닌 제방들이 생겨나고 이런 과정이 10여차례나 반복되면서 난관은 극한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건설자들은 자기 힘을 믿으면 만리도 지척이고 남의 힘을 믿으면 지척도 만리라는 철리를 뼈에 새기고 격랑을 맞받아 일떠섰다.

좁아지는 물목으로 해상과 륙지에서 큰 돌묶음식때무석과 쇠그물돌지무때무석전 등을 동시에 들이대는 속에 기승을 부리던 바다물의 광란이 수그러들기 시작하였다.

1년전 최종마감막이구간에 선행도입된 바닥보강공법이 큰 몫을 냈다.

이 공법을 도입하기 전에 26m정도로 예견되였던 지반패임현상이 극복되고 이에 따라 여기에 들어가는 막돌량이 110여만㎥나 줄어들어 공사의 완공을 확고히 담보하게 되였다.

과학기술의 돛마를 타고 사나운 바다를 깔들이며 건설자들은 1년이 걸려야 한다던 최종마감막이공사를 20여일동안에 단숨에 해제끼는 홍건도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간석지건설자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2015년 10월 7일 마침내 3호방조제 1차물막이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됨으로써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또 하나의 자랑찬 로력적선물이 마련되였다.

홍건도간석지 1단계 건설에서 관건적인 3호방조제 최종마감막이결속으로 대자연정복의 봉창훈을 부른 건설자들은 간석지를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완성하기 위한 공사에 즉시 진입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자력자강의 창조대전,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은 당의 부름이라면 천만산악도 떠옮기려는 간석지건설자들의 힘과 열정을 백배해주었다.

방조제장석쌓기와 로반공사 등 여러 대상공사들을 동시에 밀고나가기 위한 립체적인 조직사업이 치밀하게 전개되였다.

막돌과 토량을 확보하기 위한 40만산, 50만산대발파를 비롯한 320여차례의 대소발파와 채석작업으로 큰 순례도와 대삼곶도, 작은 배록도의 봉우리들은 평지로 되여버렸다.

불비속을 뚫고 전시수송을 보장한 전화의 영웅들처럼 매일 1,000여리가 넘는 운행길을 달리고달린 운전사들의 헌신적투쟁속에 하루에 500차이상의 막돌과 토량이 전투장마다에 투입되였다.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자라난 젊은 주력부대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며 리수복청년돌격대원들은 배수문콩크리트치기와 로반수평장석공사, 내제경사장석공사 등 어렵고 힘든 전투과제를 맡아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채석작업의 나날 발파가스가 빠지는 시간마저 아까와 솔잎을 물고 굴속에 들어가 다음교대준비를 도와나섰고 뜻밖의 붕락으로 굴속에 갇힌 위급한 속에서도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전진의 동음을 높이 울린 위훈담들이 무수히 꽃펴났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향한 청년돌격대원들의 대중적영웅주의, 무궁무진한 돌격정신은 한달이상 걸려야 한다던 어려운 굴뚫기과제를 8일동안 결속하는 놀라운 기적을 낳았다.

총정의 70일전투, 200일전투기간 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관철하려는 간석지건설자들의 애국총정의 일념이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다.

당의 뜻대로 련속공격,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건설자들의 앙양된 기세와 열의속에 매일 장석쌓기기록이 200m를 돌파하여 4개월은 실히 걸려야 한다던 수천m나 되는 2호, 4호방조제완성공사가 한달앞당겨 마무리되는 자랑찬 승리가 이룩되였다.

대자연개조의 나날 부자운전사, 형제운전사들이 따라배우기, 따라앞서기, 경험교환운동으로 혁신의 새 소식을 기록할 때 나어린 단발머리처녀들도 대형화물자동차의 조향륜을 억세게 틀어잡고 만리마기수의 영예를 전투기록장에 새겨갔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로 온 건설장을 들썩하게 하고 녀명돌격대원들이 남편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공사를 적극 지원하였다.

로동당시대의 황금벌을 넓혀가는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온 나라의 뜨거운 마음들이 끊임없이 달려왔다.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검열위원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홍남비료련합기업소, 봉화화학공장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련관단위들과 동림군, 선천군 등 도안의 많은 단위들에서 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고 물심량면으로 성의껏 도와나섰다.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뜨거운 마음에 받들려 3호방조제장석쌓기공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대상공사들이 공화국창건기념일까지 앞당겨 끝나고 마침내 홍건도간석지 1단계 건설완공의 개가가 높이 울리게 되였다.

홍건도간석지 1단계 건설의 완공은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자랑찬 승리이며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제재와 봉쇄도 자력자강의 보검을 틀어쥐고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질풍노도쳐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는 철리를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대자연개조의 능수, 창조의 거인들로 자라난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만천하에 떨쳐갈 열의에 넘쳐 홍건도간석지 2단계 건설을 위한 새로운 투쟁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고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한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의 위훈과 더불어 우리 조국은 대자연개조의 영웅서사시를 세세년년 새겨가며 위대한 김정은시대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눈부시게 펼쳐갈것이다.

주체105(2016)년 10월 7일
평 양

북부피해복구전역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자

140여세대의 살림집골조공사 완공

회령시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김동춘소속부대에서

새 마을, 새 거리들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오르는 북부피해복구전선의 회령천기슭에서 또 하나의 승전소식이 전해졌다.

조선인민군 김동춘소속부대에서 10일현재 140여세대의 살림집골조공사 완공!

이것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최전방에 서있는 부대답게 살림집건설완공의 봉우리에 제일먼저 승리의 기발을 꽂으려는 전체 지휘관들과 군인들의 비상한 정신력이 낳은 자랑스러운 위훈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조국보위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선과 주요전구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만족을 모르고 언제나 앞장에 서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회령땅으로 달려온 부대장병들의 전투적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워 건설을 잘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평가를 받아안은 부대의 지휘관, 군인들은 살림집건설투쟁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정치일군들인 김일룡, 고영주동무들은 예술선전대와 군악대를 비롯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전투장을 들었다놓으며 쉬임없이 울려퍼지는 우렁찬 혁명군가는 수령결사옹위전에 일떠선 지휘관, 군인들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켰다.

리창근, 장광명동무를 비롯한 부대의 책임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예견성있게 조직하면서 립체전, 섬멸전을 벌리도록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그들은 관하부대, 구분대들의 전투현장들에 세멘트와 강재, 목재는 물론 못과 쩍쇠를 비롯한 세부자재들까지 제때에 원만히 공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패기있게 전개하였다.

부대에서는 공정별로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는 한편 시공결사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관하부대 지휘관들인 류광도, 최철주, 박영식, 고성철동무들은 군인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매 층들에서 벽체축조와 층막휘틀조립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기일을 훨씬 앞당기도록 하였다. 그들은 낮에 밤을 이어가며 치렬한 결사전을 벌려 9일 새벽 2시에 자기들이 맡은 2개 호동의 3층아파트골조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단숨에의 기상으로 살림집건설에서 만리마속도를 창조하려는 불같은 열망을 안고 부대의 지휘관, 군인들은 련속적인 공격전을 벌려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현재 자기들이 맡은 8개 호동의 살림집골조공사를 완공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부대의 전체 장병들은 살림집골조공사에서 혁혁한 위훈을 떨친 궁지와 영예를 안고 전화위복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군민대단결의 숭고한 화폭이 펼쳐진다

경흥군에서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의 하나인 경흥땅에 총공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9월 피해지역 살림집건설전투에서 단연 앞자리를 차지한 조선인민군 리승규소속부대 군인들이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여가는 경흥군 읍지구 살림집건설전투장, 백두산혁명강군의 단숨에의 기상이 나래치는 이곳에서 우리가 가슴뜨겁게 새겨안는것은 군민대단결의 숭고한 화폭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언제나 우리 혁명의 제일선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단숨에의 투쟁기풍과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경흥군에 오는 사람마다 하나와 같이 감탄하는것은 인민군군인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여 살림집건설전투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모습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군인들이 경흥군에 도착한 그날부터 그들의 곁에는 친부모, 친형제와 같은 인민들이 서있다.

살림집기초콩크리트치기와 벽체축조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 제일먼저 층막콩크리트치기에 진입한것은 리춘복소속부대 군인들이였다.

우리와 만난 이 부대의 지휘관인 차영근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군인군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 병사들에게 정말 큰 힘을 주고있습니다. 여기 살림집건설전투장에서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어떤것인가를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의 심정만이 아닌 이곳 군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살림집벽체축조공사가 진행될 때에 있은 일이였다.

회암친기슭에 쌓여있는 블로크를 살림집건설장까지 시급히 운반하는것은 공사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군녀병돌격대와 가두녀성들을 비롯한 읍내주민들이 떨쳐나 인민군군인들을 도와나섰다.

운반기계가 딸리면 자전거와 등짐으로 블로크를 나르는 인민들의 모습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결사전이 벌어지던 전화의 그 나날을 방불케 하였다.

살림집내외부미장공사가 진행될 때에도 군내인민들은 군인들과 함께 모래마대를 지고 현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군 하였다. 그들중에는 처녀시절 속도전청년돌격대에서 익힌 솜씨로 미장작업을 능란하게 해제끼는 녀성들도 있었다.

이른아침 밤가마에 불을 지피기 전에 공사에 필요한 자갈을 채취하기 위해 주변의 하천으로 달려나가고 저녁늦게까지 건설장에서 군인들과 땀을 흘리고서야 발편잠을 자는것이 경흥땅의 인민들이다.

이뿐이 아니다.

살림집건설장에서 살다싶이 하며 군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애로라도 있을세라 왼심을 쓰는 군일군들과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또 밤대로 군인들을 위해 정성을 기울이는 은덕원종업원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돋보이는것인가.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실례에 불과한것이다.

하기에 경흥군 읍지구 살림집건설전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리승규소속부대 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여 군민대단결의 위력은 더 높이 떨쳐질것이라는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가고있다.

현지보도반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북부격전장

‖ 청진시 수남구역 일군들과 주민들의 투쟁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1200량의 세멘트화차수송에 크게 기여, 단 며칠동안에 3600명의 학생교복생산, 이것은 청진시 수남구역의 당, 행정일군들과 주민들이 피해복구전선을 지켜선 심정으로 이룩한 성과이다.

북부피해복구전선과 잇닿은 이 소식에서 우리는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이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끓어번지는 온 나라 인민의 열화같은 마음의 일단을 전한다.

북부전역과 잇닿은 항만들과 철길로는 이전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많은 량의 세멘트가 운반되고있다.

며칠전 어느날 청진항으로는 방대한 량의 세멘트가 들어섰다. 해상로를 통해 수송된 세멘트를 북부전선의 건설장들로 보내주자면 또다시 철길을 통해 날라야 하였다. 그러자면 화차들에 세멘트를 실어나를수 있도록 틈막이를 비롯한 일련의 작업들이 선행되여야 하였다.

소소한 작업같지만 세멘트수송의 관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것을 자각한 구역일군들과 주민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수송과정에 손상된 부분들을 보수하고 틈막이작업을 진행해야 할 화차들의 수는 하루에도 100여량에 달하였다.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종업원들이 피해지역 살림집건설에 동원된 상태여서 로력이 절대적으로 부족되였다.

구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협의회가 긴장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인 김혜경동무가 준절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론하기에 앞서 전화의 남강마을녀성들의 투쟁을 들어커봅시다.》

그에 호응하는 구역일군들의 목소리들이 연방 울려나왔다.

《나는 후방도 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기어이 세멘트수송전투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협의회소식은 그밤으로 주민들에게 전해졌다.

다음날 새벽이였다. 작업현장은 수천명의 사람들로 붐비였다. 그들의 손에는 화차보수에 필요한 자재들이 들려있었다. 세멘트수송에 긴요하게 쓰일 그 하나하나의 자재들은 자기 집보수와 세간나는 자식들을 위하여 마련해두었던것들이였다.

화차들이 꼬리를 물며 연방 들어섰다. 그때마다 가두인민반들에서 달려나온 주민들이 한개 화차씩 라그앞아 불이 번쩍 나게 일손을 다그쳤다.

손에 물집이 지도록 틈막이작업에 필요한 솜과 가위밥으로 넓은 띠를 꼬았으며 피해복구전선에 달려나간 남편들과 아들들을 대신하여 톱질과 망치질도 걸싸게 해제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속에 이 나날 구역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문영초동무는 모진 아픔을 참아가며 침식을 잊고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차연숙동무는 대오의 기수가 되여 맏은 일을 끝내고는 수천개의 마스크와 장갑을 만들어 군인건설자들에게 안겨주었다. 누가 시킨 사람은 없었지만 피해복구전선에 수십t의 남새와 후방물자들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그들의 투쟁모습은 전화의 그날 총포탄이 작렬하는 고지우로 탄약상자와 후방물자들을 등에 지고 달리던 남강마을녀성들을 방불케 하였다.

피해지역 학생들의 긴급교복생산과 가구류생산목표가 나섰을 때는 또 어떠하였는가.

단 5일동안에 3600벌의 학생교복을 생산한다는것은 구역안의 피복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린다고 해도 힘치 않은 일이였다.

피복공장들은 물론 편의봉사망의 양복점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의 종업원들이 전시생산을 보장하는 립장에서 불같이 살며 투쟁하였다. 특히 천화봉동무가 일하는 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학생교복생산을 위한 철야전투를 벌리면서 청사보수용자재로 아껴온 10여t의 세멘트를 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었으며 자체로 마련한 예비로 수많은 벽장들과 찬장을 만들었다.

우리는 여기에 많은 자금을 피해복구전선에 씨달라고 당부하던 어항동의 한 주민에 대한 이야기며 군인건설자들에게 하루 1t의 단물공급을 자원하여 말아나선 구역종합식당 종업원들의 투쟁, 피해지역의 살림집건설에 이바지한 사람들의 하많은 사연들을 다 전하지 못한다.

그들은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허나 당의 부름이라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스스로가 산악같이 떨쳐나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꽃피워가는 우리 당의 아들딸들이였다.

이 열화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는 전화위복의 려명이 밝아오고있다.

본사기자 전 성 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1돐에 즈음하여

경 축 공 연

중앙과 지방에서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1돐을 맞으며 중앙과 지방에서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

공연장소들에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의 당,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의 정이 차넘치였다.

모란봉극장에서 조선로동당창건 71돐경축 국립교향악단음악회 《당에 드리는 노래》가 진행되였다.

관현악서곡 《어머니생일》, 관현악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조국찬가》, 바이올린협주곡 《고백》 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시고 우리 당을 자주시대의 가장 권위있고 존엄높은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항일혁명투사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사상예술적으로,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준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공연이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봉화예술극장에서 펼친 음악무용시 《〈아리랑〉이 전하는 이야기》공연은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의 번영하는 오늘이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휘황한 래일이 있다는 신념을 깊이 새겨주었다.

국립연극극장에서 연극 《혈맥》 공연이 진행되였다.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 뜨락에 이어놓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중산의 동음을 높이 울린 상원로동계급의 투쟁기풍을 감명깊게 형상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평양교예극장과 요술극장에서는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과 요술공연이 진행되여 10월명절을 맞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희열과 랑만을 더해주었다.

평안북도, 황해북도, 자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비롯한 각 도의 예술단들에서도 뜻깊은 경축무대를 펼치였다.

공연장소들에서 울려퍼진 《어머니의 목소리》,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번영하여라 로동당시대》,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조선로동당 만세》 등의 로동당찬가들은 사랑과 정으로 사회주의화원을 펼쳐주고 온 나라 인민을 위대한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장내에 차넘치게 하였다.

개성시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종합공연 《북받은 인민의 노래》가 개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경축공연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당건설력사는 영원불멸하리라는것을 심장깊이 간직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갈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음악무용이야기 《청춘의 자서전》공연 진행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1돐을 맞으며 음악무용이야기 《청춘의 자서전》공연이 10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김영남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공로자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기관,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서장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등불아》로 시작된 음악무용이야기는 남성독창 《청춘의 자서전》, 무용 《서두수의 얼음을 헤치며》, 남성합창 《백두의 행군길 이어 우리는 간다》, 무용 《백두의 넋》, 녀성3중창과 무용 《그리움의 하얀 폭배》, 남성독창과 무용 《생이란 무엇인가》, 무용 《단숨에》, 합창 《금방석》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로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열혈청춘들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일떠세운 과정을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출연자들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넋이 깃들어있고 주체혁명위업의 깊고도 억센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백두산이 지척인 백암땅에서 10여년간 발전소건설에 애국헌신의 피와 땀을 바치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지닌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더욱 억세게 성장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예술적화폭으로 잘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공연을 보면서 산세험한 발전소건설장까지 찾아오시여 돌격대원들에게 청년강국의 주인들이라는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로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면불휴의 로고속에 청춘의 대기념비가 일떠서고 백두산영웅청년신화가 창조되였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우리 청년들을 시대의 영웅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이 무대배경에 정중히 모셔지자 한없는 격정에 휩싸여 전체 관람자들은 우렁찬 박수를 터쳐올리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벌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억척불변의 철리를 거창한 실천으로 증명한 청년돌격대원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를 훌륭히 형상한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백두청춘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일편단심과 당중앙결사옹위정신, 당정책결사관철의 혁명정신을 새겨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창조한 우리 청년전위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예술적화폭으로 생동하게 보여준 음악무용이야기 《청춘의 자서전》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1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0일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당창건기념탑, 개선문, 평양체육관 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은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호소따라 북부피해복구전역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가 마련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이한 청년전위들의 환희로 설레이였다.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의 노래선률이 10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지자 경축의 춤바다가 펼쳐졌다.

주체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고 우리 당과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이 땅우에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불패의 대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무도회장들에 뜨겁게 굽이쳤다.

《당이여 그대는 우리의 기쁨》, 《당을 따라 멸치럼 나도 살리》 등의 노래가 련이어 울리는 속에 참가자들은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선군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아름다운 춤물결을 일으켜나갔다.

회세의 선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영광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쳐 참가자들은 《인민의 환희》,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의 노래선률들에 맞추어 흥겨운 춤가락을 이어갔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청년대군, 당의 선군만마의 무한대한 힘을 남김없이 폭발시켜 200일전투의 최전방인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새로운 영웅마련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아름다운 춤물결을 일으켜나갔다.

청년신화를 다계단으로 창조해갈 일혈청춘들의 드팀없는 의지를 담은 《불타는 삶을 우린 사랑해》, 《청춘송가》, 《조국도 빛나리 청춘도 빛나리》 등의 노래들이 무도회장들을 진감시키며 경축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전체 무도회 참가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찬란한 설계도따라 오늘의 총공격전, 총돌격전에서 500만 청년전위들의 불패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해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의 청년학생들도 무도회를 열고 당창건 71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제11차 학생소년예술개인경연 입선자들의 종합발표회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1돐을 맞으며 제11차 학생소년예술개인경연 입선자들의 종합발표회가 10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속에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펼치며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고있는 학생소년들의 기쁨과 랑만이 차넘치는 무대에는 2중창 《고마워요 당의 품》, 바이올린독주 《소년단행진곡》, 남독창 《빛나라 우리 평양》, 피아노독주 《돈돌라리》, 구연 《아버지가 그린 그림》을 비롯한 여러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과 후대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소해금독주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 남독창 《만경대나라 백두산나라》 등에 차넘쳤다.

민요독창 《그 학생이 바로 저랍니다》, 3중창 《나래쳐라 우리 희망》, 가야금독주 《나는야 꽃봉오리》를 비롯한 종목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과 축복속에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로 자라나는 학생소년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잘 보여주었다.

항일의 아동단원들과 전화의 소년근위대, 소년빨찌산들처럼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고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선군시대의 참된 소년혁명가로 준비해나갈 학생소년들의 명세가 반영된 무용 《아동단원 금순이》, 하모니카중주 《혁명군놀이》, 손풍금4중주 《소년빨찌산의 노래》 등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피줄기를 꿋꿋이 이어나갈 계승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준 발표회는 독창과 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김정은원수님 발걸음 따라 앞으로》로 끝났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청년동맹, 관계부문 일군들, 청소년학생들이 발표회를 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0일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해주시고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뜨거운 지원열의

곡산군에서

곡산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피해지역 인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군에서는 짧은 기간에 식량과 식료품, 생활용품과 피복류를 비롯하여 많은 지원물자를 성심성의껏 마련하여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떠나보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치고 온 사회가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이며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은 즉시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피해복구전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로 불러일으키였다.

일군들이 단위들에 내려가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행과 아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나서도록 추동하였다.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의 일군들은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높뛰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시위할 드높은 결의로 가슴을 끓이며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하였다.

군책임일군들이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있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하나의 피줄로 이어진 피해지역 주민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는 심정으로 가정에서 많은 식량과 먹는기름, 섬유제품과 집기류 등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하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식료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에 시급히 필요한 식량과 먹는기름, 피복류 등 여러가지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피해지역 인민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협동농장들에서도 진행되였다.

먹흥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뜨거운 혈육의 정을 안고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하였다. 다른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여러가지 지원물자들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며칠동안에 많은 식량과 수천벌의 피복을 비롯하여 수십종에 1만여점의 생활필수품을 마련하여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보내주었다.

청년들이 북부피해복구전투장으로 용약 탄원하였다. 군광정사업소 로동자 차광일, 강은정동무를 비롯한 군안의 수십명의 청년들이 남먼저 피해복구전선으로 떠나갔다.

오늘도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갈 불타는 마음으로 지원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특파기자 김 천 일

충정의 200일전투를 힘있게 추동

각지 당선전일군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략전술은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온 나라가 혁명적대고조의 불도가니로 부글부글 끓게 하는것입니다.》

충정의 200일전투에로 무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국의 당선전일군들은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온 나라를 혁명적대고조의 불도가니로 부글부글 끓게 하고있다.

당선전일군들은 우리 당의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기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평안남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도안의 200일전투장들에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대혁신, 대기적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도의 특성에 맞게 화선식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림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무서안의 일군들을 불끓는 전투장들에 내려보내였다.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집중강연선전대를 꾸고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숙천군 룡덕농장을 비롯한 490여개 단위에 나가 연 20여만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강연선전활동을 벌리였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2.8직동청년탄광,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전투현장에서 수십명의 방송선전차 방송원들이 참가하는 방송선동경연도 의의있게 조직진행하였다.

특히 도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해당 부문의 일군들로 5개의 록화촬영조를 무어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중요격전장들에 파견하였다. 록화촬영조성원들은 도안의 시, 군, 련합기업소들에 나가 구호, 표어, 선전화, 경쟁도표, 전투속보, 입력판, 붉은기 등 직관선동준비정형과 전투목표수행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단위들을 촬영하고 록화편집물을 만들어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여 커다란 실효를 거둘수 있게 하였다.

천명국, 류해순, 리성일동무를 비롯한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벌리는 화선식정치사업은 그대로 평남땅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 도적으로 많은 전형단위들이 창조되고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당선전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에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차게 벌리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번창남동무를 비롯한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유훈과 당 제7차대회보고의 제계와 과업, 그 관철을 위한 정치사업 및 해설담화자료들을 적은 수첩을 가지고 막장들에 내려가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탄부들의 가슴마다에 경제강국건설의 전초병된 영예를 더욱 깊이 심어주었다. 굴진을 앞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직관화하여 덕천탄광 사동갱 고속도굴진소대 료양장소에 게시한것을 비롯하여 련합기업소적으로 18개 장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그 집행정형을 직관물로 게시하여 일군들과 탄부들이 당정책을 언제나 심장속에 안고 살며 투쟁하도록 하였으며 탄광문화회관앞과 갱입구에 전개한 직관관들에 로력혁신자들의 소보작품, 충정의 200일전투기록장에 등록된 대상들의 이름을 게시하여 경쟁열의를 더욱 고조시켰다.

특히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현실속에 들어가 뒤떨어진 단위들을 도와주기 위해 벌린 정치사업은 커다란 실효를 나타냈다. 덕성탄광 당조직의 선전선동사업정형을 료해하는 과정에 실적을 내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알게 된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정치사업자료와 직관자재, 작업장갑을 넣은 배낭을 메고 탄광적으로 제일 뒤떨어진 5갱 막장에 내려가 30여점의 구호와 표어, 전투속보, 경쟁도표를 게시하고 탄부들의 피를 펄펄 끓게 하는 정치사업을 들이대였다. 탄부들과 함께 머리를 싣고 탄차를 밀면서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선 사람에게는 천리도 지척이지만 남만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지척도 아득한 만리라는 진리를 깊이 심어주었고 작업의 협참에는 노래요청도 들어주면서 격식과 틀이 없이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리였다. 대중의 정신력은 남김없이 분출되여 갱적으로 하루 석탄생산량을 2배로 끌어올리는 성과가 이룩되게 되였다.

월봉탄광에서 8월에 들어와 화력탄보장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있을 때에도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련합기업소안의 기동예술선동대, 계급교양강사, 선동원, 방송선전차들을 집중과견하여 침입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정치도시들, 가정에서 준비한 축전지와 태양빛전지판을 가져다주고 사업과 생활도 잘 돌봐줌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였다.

락랑구역당위원회 최정애동무를 비롯한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충정의 200일전투를 다그치기 위한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분출시키고있다.

경제선동대를 붓고 려명거리건설장, 평양화장품공장현대화공사장, 동평양화력발전소로 달려나간 구역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전투현장들에서 합창시 《려명은 새날을 부른다》, 기타병창 《단숨에》와 합창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등 작품들을 가지고 경제선동활동을 벌리면서 많은 후방물자를 넘겨주어 전투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경제선동대원들은 인민경제 주요전투장들에서 30여회의 경제선동활동을 벌려 전투원들을 200일전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라선시 라진지구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매일 아침 방송선전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구안의 여러 지역들에 증폭기를 가지고나가 《우리는 만리마기수》를 비롯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과 방송선전편집물들을 내보내여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였다.

이밖에도 신의주시당위원회, 사리원시당위원회, 서성구역당위원회, 룡천군당위원회, 신천군당위원회 등 많은 시,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충정의 200일전투의 앞장에서 항일유격대나팔수로서의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본사기자 최 영 길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대표단 도착

제13차 인민체육대회에 참가할 리청경 상임리사회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대표단이 1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신의주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 적극 지원

평안북도의 혁명가유가족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후대들을 혁명의 꽃으로, 강성조선을 떠메고나갈 미래의 억군으로 키우려는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에 살고있는 수십명의 혁명가유가족들이 신의주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그들속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 장렬한 최후를 마친 혁명렬사의 안해 최연순할머니를 비롯한 혁명렬사들의 안해들과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을 졸업한 수십명의 혁명가유자녀들이 있다.

도안의 혁명가유가족들은 대를 이어 더해만 가는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적은 힘이나마 보답할 불같은 마음을 안고 한자리에 모여앉아 신의주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장에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보내주자고 결의해나섰다.

그들은 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을 찾아가 자기들의 뜨거운 지성이 어려있는 지원물자를 넘겨주고 경제선동활동도 진행하면서 그들의 일손도 도와주었다.

얼마전에도 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장으로 나간 그들은 노래 《우리의 김정은동지》, 혼성중창 《자력갱생기치높이 다시한번 대고조로》, 《남산의 푸른 소나무》, 《불타는 소원》 등 다채로운 공연종목들을 준비하여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해주었다.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한순간을 살아도, 한걸음을 걸어도 우리 당과 운명을 함께 해나가려는 혁명가유가족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에 감동된 돌격대원들은 신의주초등학원, 중등학원을 시대의 표준이 되게 일떠세울 불같은 결의에 넘쳐 련일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련방제통일의 길에 아로새겨진 불멸의 자욱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줄기찬 투쟁의 력사를 돌이켜볼 때마다 온 겨레의 가슴속에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업적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정이 뜨겁게 차넘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사상과 로선을 밝혀주시였기에 우리 민족은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조국통일운동을 승리적으로 다그쳐올수 있었다.

력사적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6돐을 뜻깊게 맞이한 우리 겨레는 한없이 경건한 마음을 안고 자주통일위업실현의 길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격정속에 되새겨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기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여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조선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며 나라의 통일은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되여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드팀없는 의지였다.

오늘도 온 겨레에게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는 련방제통일방안,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투철한 민족자주사상과 통일의지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돌이켜보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에는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그 구현인 7.4공동성명의 채택으로 전민족적범위에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기운이 급격히 고조되는데 당황망조한 미국과 괴뢰통치배들은 그 누구의 《남침위협》에 대해 떠들고 체제대결을 고취하였으며 지어 《통일불가능론》까지 들고나오며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한편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비범한 예지로 정세흐름과 조국통일운동앞에 나선 절박한 문제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9(1980)년 10월 10일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였다.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 북과 남의 정부를 그대로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련방국가를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힘주어 선언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민족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인정하고있는 이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될수 없다는것과 한나라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국가안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철의 론리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련방제통일방안에 의하여 외세와 야합하여 민족의 영구분렬을 꾀하면 남조선통치배들은 하루아침에 서리맞은 호박잎신세가 되였다.

우리 겨레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숭고한 애국의지에 매혹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가장 공평정대하고 현실적인 통일방도》로 열렬히 지지찬동하면서 련방제통일을 적극 주장하여나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련방제통일방안을 자주통일의 유일무이한 방도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길에 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라고,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은 다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여있고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과 함께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고 온 민족을 련방제방식의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20돐이 되는 주체89(2000)년에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되는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을 우리 겨레에게 안겨주신것은 련방제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특기할 사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투철한 자주통일의지와 비범한 령도에 의해 6.15공동선언에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간다는것이 평가되였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련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온 겨레는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자주통일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게 되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은 조국과 겨레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불철주야의 끝없는 헌신으로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가장 거룩한 한평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련방제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여 온 겨레를 자주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고계신다. 그이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방략과 방도를 휘황히 밝혀주신것은 온 겨레에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유훈을 높이 받들고 련방제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신심과 의지를 북돋아주고있다.

오늘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은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악랄하게 도전하면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그러나 내외반통일세력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따라 조국통일을 마중해가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자주위업의 승리의 상징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주신 조국통일의 튼튼한 토대가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념원은 머지않아 성취되고 이 땅우에는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이 반드시 일떠서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라설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71돐에 즈음하여 올리는 편지채택모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에서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71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에서 올리는 편지를 채택하는 모임이 7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회장, 재중조선공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돌아보면서 깊은 감명을 표시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10.4선언 리행하여 자주평화통일 이룩하자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이 주장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이 4일 《10.4선언 리행하여 자주평화통일 이룩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6.15공동선언에 이어 발표된 10.4선언은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귀중한 선언이라고 주장하였다.

2007년 10.4선언이 조국강토에서 울려퍼져 세계로 뻗어나갈 때 북, 남, 해외 온 겨레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 얼싸안고 통일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주평화통일을 향해 전진해나갔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그러나 지금 조국땅에는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태가 조성되였다고 성명은 개탄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전쟁도발책동, 중상모략, 제재 등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이 앞장서서 남조선, 일본과 함께 하는 반공화국군사적도발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다고 성명은 폭로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이 과거에는 《방어훈련》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합동군사연습을 하였지만 이제는 로골적으로 선제공격을 위한 훈련이라고 제쳐대며 펜펜스럽게 들아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특히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편승한 박근혜《정부》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분렬이후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해있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민족의 념원인 조국통일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자주통일, 민족대단결로 해야 한다.

외세인 미국과 추종국가들이 우리 민족의 념원인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방해하고있지만 우리는 자주적으로 단결단합하여 반드시 조국을 통일할것이다.

통일은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 민족끼리 해야 한다.

남녘땅 곳곳에 도사리고있는 외세의 군대는 물러나야 한다.

특히 북과의 전쟁을 획책하는 미군은 핵무기를 가지고 사라져야 한다.

통일은 평화롭게 해야 한다. 민족의 대참화를 가져오는 전쟁으로 통일할수 없다.

평화를 깨뜨리는 각종 북침군사연습과 중상모략은 당장 그만두어야 할것이다.

우리는 자주평화통일의 신심을 안고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사복입은 호전광의 푼수없는 객기

괴뢰군부패거리들이 그 누구에 대해 《응징》나발을 제치며 호전적망동을 부리자 사복입은 황교안역도까지 덩달아나서서 전쟁록언을 내뱉으며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며칠전 이자는 그 무슨 《경축사》라는데서 《북의 핵위협》에 대응한 《확고한 방위능력》이니 뭐니 하면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핵도발을 억제》하겠다고 경망스럽게 놀까불었다. 망동이가 뛰면 물뚜기도 뛴다는 격이다. 역도의 망발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고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저들의 대결망동을 합리화하며 《도발억제》의 간판밑에 반공화국압살소동을 더한층 강화하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얼뜨기의 푼수없는 객기에 불과하다.

황교안이 《북의 핵위협》을 또다시 제치며 그 무슨 《방위》에 대해 운운한것은 실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북침핵전쟁도발책동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핵억제력을 보유하고 그것을 날로 더욱 강화하고있다. 우리가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테에 쳐부실수 있는 무진막강한 자위적핵억제력을 마련하였기에 미국의 핵위협소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속에서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효과적으로 억제되고있다. 우리의 정의로운 핵억제력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철의 방패이고 민족수호의 보검이라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수 없다.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외세와 야합하여 군사적도발로 북남관계를 완전파괴하고 핵전쟁책동에 기승을 부리는자들이 《북의 핵위협》이니 뭐니 하고 우리를 걸고들 체면이 있는가. 《대북응징대세》니, 《고강도대응》이니 하는 폭언들을 랑랑 제쳐대면서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국의 핵공격수단들을 련속 끌어들이며 극도의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호전광들이 누구인가.

괴뢰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조선동해와 서해에서 북침핵선제타격을 가상한 도발적인 련합해상훈련에 나서는가 하면 그 무슨 《핵심시설정밀타격》이니, 《지휘부타격》이니 하는 위험한 망발들을 내뱉으며 타국적공군훈련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는 현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장본인은 바로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이 저들의 무분별한 전쟁도발망동에 대해서는 아닌보살하면서 《북의 핵위협》이니 뭐니 하고 악담질해댄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그따위 서툰짜리 오그랑수로 긴장격화의 책임을 모면하고 반공화국대결소동을 합리화할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것이다.

가소로운것은 군사에는 알짜 문외한인 황교안따위가 《확고한 방위능력》이니, 《단호한 의지》니 하고 설쳐대며 우리에게 감히 도전해나선것이다.

황교안역도가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취해지는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앞에 혼쭐이 나 리성과 분별을 다 잃은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군복무까지 기피한 천하의 겁쟁이가 무슨 담이 있어 《단호한 의지》니 뭐니 하고 죄목을 빼들었겠는가.

이 얼간망둥이가 엄전키운에 물젖고 자살과 폭력, 부정부패가 만연되는 오합지졸의 무리인 괴뢰군을 믿고 너덜거린것 같은데 그야말로 앙천대소할노릇이다. 저들이 할애비처럼 섬기는 미국마저 우리의 핵공격능력앞에 전전긍긍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감추지 못하고있는 판에 상전의 대포밥에 불과한 괴뢰군에 기대를 걸면 허세를 부렸으니 이 얼마나 가소로운 추태인가.

다시한번 경고하건대 박근혜패당은 저들의 최지를 똑바로 알고 무질없는 대결망동을 걷어치워야 한다.

무적의 핵억제력을 갖추고 원쑤격멸의 의지로 만장약된 백두산혁명강군은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도발망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우리는 이미 적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피할 방도는 오직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건드리지 않고 자중, 자숙하는데 있다는데 대해 천명하였다.

괴뢰들은 우리의 경고를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온정철

구린내풍기는 도적왕초의 몰골

일명 최순실사건으로 불리우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부정부패사건은 자기의 리기적목적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비렬하고 더러운 수법에 서슴없이 매달려온 박근혜역도와 그 졸개들의 죄행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우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부정부패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청와대패거리들의 꼬리가 계속 드러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야당의원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기부하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들에 압력을 가하였다는 증언내용이 담긴 록음자료를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전국경제인련합회》에 기부금을 내놓을것을 요구하였을뿐만아니라 때개 기업들에 기부할 금액까지 적어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청와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부정부패사건은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번 사건이 청와대의 철저한 계획아래 이루어진것이라는것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하면서 《세누리당》이 그토록 《국회 국정감사》를 저지한 리유도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것이였다고 폭로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야당들은 지금 미르재단이 설립된지 한달만에 해외업체들과 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활발히 활동할수 있은것은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김재수가 농수산식품류통공사 사장으로 있던 시기에 닦아놓은 토대를 리용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박근혜가 《국회》의 김재수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리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주장해나서고있다.

K스포츠재단도 마찬가지이다.

야당의원들이 폭로한데 의하면 지난 시기 집권자의 해외행각기간에 벌어지는 체육사업관련행사는 어느 한 기관이 고정적으로 주최해왔지만 K스포츠재단이 창설된 후 행사는 이 재단이 주최했다. 더우기 문제는 K스포츠재단이 해당 사업들을 자체의 능력으로 진행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혜를 받았다는데 있다. 야당들은 아무런 경험도 없고 설립된지 몇개월밖에 되지 않는 재단에 집권자가 해외에서 벌리는 행사를 맡긴다는것은 청와대의 개입이 없이는 상상할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남조선언론들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부정부패사건을 까밝히는 사실자료들을 계속 보도하고있다.

한 언론은 두 재단의 설립에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전국경제인련합회》(《전경련》)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창립모임에 기업가들이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참가하여 돈을 기부하기로 한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매 기업들의 가짜도장까지 찍었다. 언론은 이것이 바로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것이였다고 하면서 그와 관련한 기업들의 내부문건과 자료들을 입수하여 공개하였다. 언론들은 《〈전경련〉은 청와대지시에 따라 움직인 조감독이였고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출연한 립시 고용배우에 불과했다.》고 하면서 이제 남은것은 청와대와 《전경련》의 진실한 고백과 사과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두 재단의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문화체육재단을 내오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사건을 흑막속에 묻어버리기 위한 술책이라는 각계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실제로 지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패거리들은 재산을 정리하고 문건들을 소각하는 등 증거로 될수 있는 자료들을 전부 없애버리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부정부패사건이 심화되자 새로운 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것은 두 재단을 세탁하여 범죄흔적들을 지워버리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재단들의 금융계좌를 시급히 조사하여 지금까지 긁어모은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부터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야당들은 박근혜역도가 퇴임후에 리용하게 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이미 67억원에 달하는 돈을 확보하였는데 이것은 핵대 집권자들중 최대규모라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들만 가지고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청와대가 대기업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만든 재단이라는것이 명백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야당들은 두 재단의 설립과정과 관련한 증언에서 거짓말을 한 괴뢰국무총리도 법정에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퇴임후에 필요한 비밀자금조성에 환장하여 특대형부정부패범죄를 저지른 더러운 돈벌레, 인간추물 박근혜가 그 무슨 《청렴정치》를 외워대는것이야말로 민심에 대한 파렴치한 우롱이며 모독이다.

지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부정부패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패거리들이 저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듯이 수염을 내리쓸고있지만 그 뻔뻔스러운 추태도 오래가지 못할것이다. 론박할수 없는 사실자료들이 계속 폭로되고있다.

희세의 도적왕초 박근혜역도는 자기가 저지른 부정부패범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괴뢰패당의 부정부패행위를 비난

남조선 《뉴시스》, 《한겨레》에 의하면 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박근혜패당의 부정부패행위를 비난하였다. 최근에 드러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사건과 관련하여 그는 박근혜《정부》의 권력형부정부패행위는 력대 처음 보는것으로서 점점 기막힌 지경에 이르고있다고 개탄하였다.

그는 현 《정부》가 기업들의 주머니를 털어냈으며 재단에 자금을 넣은 기업에는 특혜를 주었다고 폭로하였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사건이 드러나자 《정부》는 진전궁궁하면서 통합재단을 만든다 어쩐다 하고있으며 민생을 혼해야 할 국감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인 막후실세인물들을 보호하기 위한것으로 전락시켰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그는 박근혜와 그의 측근의 련루여부를 따져야 하는 미르재단사건을 고발사건의 하나로 단순하게 치부하는것은 국민들의 웃음을 자아낸다고 비난하였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의혹 등 권력형부정부패의혹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벽을 넘지 못하고 국정이 마비되는 오늘의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라도민심을 낚으려는 비렬한 음모책동

지금껏 전라도지역을 쓴외보듯하며 차요시하던 박근혜패당이 최근 이 지역 민심을 낚아보려고 교활한 술책에 매달리고있다.

얼마전 《새누리당》대표 리정현은 호남(전라도지역)파 《새누리당》의 그 무슨 《련대정치, 련합정치》에 대해 한바탕 떠들어댔다. 이자는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는데서 호남은 《특정정당의 점유물》이 아니라고 비린청을 돋구면서 《련방정치》니, 《주류정치》니 하는 말장난으로 이 지역 민심을 회유하려 들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새누리당》의 회의가 열리는 보기 드문 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괴뢰보수패당은 느닷없이 《전라도의 발전》을 운운하며 그 무슨 《특별예산지원》놀음을 벌려놓고있다. 이것은 《새누리당》이 전라도지역을 넘보며 이 지역 민심을 장악하고 그에 의거하여 재집권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발광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이 력사상 처음으로 전라도출신인 리정현을 《새누리당》대표로 내세운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야권의 심장부》라고 불리우는 전라도는 력대적으로 파쑈독재세력,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반대기운이 높은 지역이다. 광주인민봉기도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괴뢰보수패당이 이 지역에 마수를 뻗쳐보려고 오그랑수를 쓰고있는것은 그저 스쳐지날 사태가 아니다.

괴뢰보수패당은 전라도지역에 대하여 대물림해오는 병적인 거부감과 불신감을 가지고있다. 박근혜역도의 애비 박정희는 자기의 출신지역인 경상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전라도를 하대하면서 지역주의, 지역감정을 극구 고취하였다. 전라도출신의 야당인사를 백주에 일본에서 랍치하여 바다물속에 수장해죽이려 한 김대중랍치사건은 전라도지역에 대한 《유신》독재자의 배타적감정과 증오심을 잘 보여주었다. 박정희역도의 극심한 지역주의는 5.16군사쿠데타이후 괴뢰군내에서 경상도출신이라면 등급에 구애됨이 없이 원하는 직위를 차지하고 행세할수 있었으나 전라도출신은 무턱대고 배척당하고 천대만 받은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1970년이후 7년간 괴뢰군내에서 장성으로 진급된자들의 출신을 따져보면 95~98%가 경상도출신이였다. 당시 미국의 AP통신도 남조선의 전라도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차별대우속에 《2등공민》처럼 취급되여왔다고 전하였다. 박정희역도의 이런 지역차별화는 마치도 과거의 봉건적신분제도를 련상시켰으며 경상도주민과 전라도주민의 관계는 양반과 상놈의 관계를 방불케 했다. 오죽하였으면 그 시기 《경상도제국에 전라도식민지》라는 말까지 생겨났겠는가. 전두환군사깡패가 광주인민봉기를 류혈진압하기 위해 경상도출신들로 구성된 공수특전려단을 투입한것도 박정희역도에 의해 적극 조장된 지역감정을 리용한 극악무도한 살인만행이였다.

대물에서 대가 나고 씨리물에서 씨리난다고 박근혜역도는 제애비를 그대로 본받다. 2012년 《대통령》선거때 역도는 괴뢰정보원심리전단 요원들을 동원하여 전라도출신인사들을 《홍어종자》로 모욕하고 광주인민봉기를 《폭도들의 란동》으로 헐뜯었다. 광주인민봉기기념식때마다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상징하는 노래로, 전라도인민들의 자랑으로 불리워지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못하게 금지시킨것도 박근혜패당이다.

어디 그뿐인가. 박근혜역도는 지난 6월에 광주인민봉기당시 환각제를 먹고 광주시민들에 대한 피비린내나는 살륙작전을 벌린 살인악마부대인 괴뢰11공수특전려단을 내몰아 광주에서 시가행진까지 벌리려 하였다. 광주인민봉기자들과 전라도인민들에 대한 이보다 더한 우롱과 모욕이 또 어디에 있는가.

지역주의고취로 전라도인민들을 가차없이 짓밟은 《유신》의 후예들이며 광주를 《피의 목욕탕》으로 만든 전두환군사깡패무리와 한배속인 《새누리당》것들이 그 무슨 《련대정치》와 《주류정치》를 뇌까리며 전라도지역에 낯짝을 내밀고있는것은 그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다. 살인귀들에 대한 피의 복수를 절규하며 망월동묘지에 묻힌 광주의 항쟁용사들이 이것을 안다면 무덤을 박차고나와 역적들의 면상을 쳐갈겼을것이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재집권을 추구하며 이전에는 그토록 떨시하고 천대하던 전라도사람들까지 끌어당기는 《새누리당》패거리들의 뻔뻔스러운 추태앞에서는 누구나 억겨움을 금할수 없을것이다. 이자들이 《대통령》선거가 다가오자 본색을 감추고 낯간지럽게 《전라도의 발전》에 대해 외우며 《특별예산지원》이니 뭐니 하고 돈주머니를 흔들어대는것은 전라도주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지금 전라도민심은 《새누리당》의 너절한 정치사기행위에 침을 뱉고있다. 동시에 야당세력들이 힘을 모아 《새누리당》패거리들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웨치고있다.

그럴수밖에 없다. 전라도민심을 꼬드기는 《새누리당》의 추태는 사실상 야권분렬을 노린 술책이기때문이다.

지금껏 남조선에서 야권분렬로 보수세력이 어부지리를 얻은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1987년 정치간상배인 김영삼이 김대중과의 후보단일화를 요구하는 전라도민심을 뿌리친 결과 군사깡패 로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이로 하여 몸서리치는 군부파쑈독재가 연장되였었다. 이런 뼈아픈 교훈을 새겨안고있기에 전라도인민들은 야당세력들이 분렬을 막고 련대련합을 실현할것을 강하게 주장하고있는것이다.

현재 남조선에서는 일부 야당인물들이 야권통합을 반대하면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의 3자구도로 《대통령》선거를 치르려 하고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멸행위로 된다는것을 남조선의 진보민주세력들은 잘 알고있다. 지금 그들속에서는 3자구도로 《대통령》선거를 치르자는것은 자기들을 지지해준 전라도민심을 팔아 개인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려는 너절한 배신행위로 된다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다.

온갖 미사려구와 유혹으로 전라도를 끌어당기고 야권을 분렬시켜 재집권야망을 실현하려는 《새누리당》패거리들의 비렬한 음모책동은 결코 통할수 없다. 《새누리당》에 씻을수 없는 원한을 품고있는 전라도인민들이 그것을 용납치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리효진

단평 거대한 정신병원

남조선에서 지긋지긋한 괴뢰군살이로 하여 정신병자가 되는 장교, 사병들의 수가 매해 평균 1만 2천여명에 달한다는 자료가 공개되여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괴뢰군이 통째로 정신병진단을 받았다고 개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사실 온전한 사람도 순간에 정신병자로 만드는 악의 소굴이 바로 괴뢰군이다. 미제에 의해 조작된 괴뢰군에서는 폭력과 기합으로 사병들을 다스리는 미국식 《병영문화》가 지배하고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모진 폭행에 더는 견딜수 없어 총기를 란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괴뢰군에서는 일상사로 되고있다. 이런 몸서리치는 지옥에서 정신병자들이 줄줄이 생겨나밖에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오죽하면 남조선에서 괴뢰군에 가면 자살과 병신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고 하면서 군징집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되고있겠는가.

비빠맞은 괴뢰군부가 군병원들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한다, 집중치료소를 내온다 하고 북닥소동을 피우고있지만 그 식이 장식이다. 오히려 형세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각계의 비난만 고조되여 괴뢰군부패거리들이 골머리를 앓고있다.

미국의 식민지고용군이며 제물패력으로 망해가는 괴뢰군에서 정신병자들이 늘어나는것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다.

그런즉 남조선괴뢰군이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정신병원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허영민

김천시민들 《싸드》배치결정 철회를 요구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5일 남조선의 《싸드》배치반대김천투쟁위원회가 괴뢰패당의 집요한 《싸드》배치책동에 항의하여 서울에서 집회를 가졌다.

지난 9월 24일 김천을 출발하여 도보로 서울까지 행진해간 투쟁위원회 성원들이 1000여명의 김천시민들, 천불교의 교인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김천린근 싸드배치 결사반대》 등의 구호만들을 들고 당국이 김천시와 가까운 성주골프장에 《싸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규탄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이 부당한 결정을 당장 철회하며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사퇴하라고 요구하였다.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김천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항의문을 들이댔다.

【조선중앙통신】

반미반전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사회주의조선은 언제나 승리만을 떨칠것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돐, 조선로동당창건 71돐,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90돐에 즈음하여 도이췰란드에서는 경축집회가, 앙골라에서는 좌담회가 9월 26일과 27일에 진행되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위대한 수령들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력사의 온갖 시련을 과감히 뚫고 영광스러운 백전백승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올수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로동당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며 조선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력사적사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고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할것이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앙골라 엠뽀로에통회사 총사장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적대세력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인을 놀래우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투쟁의 진두에 바로 조선로동당이 있다. 인민을 이끌어 세기적변혁을 이룩해온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앞으로도 승리와 영광만을 떨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돐, 조선로동당창건 71돐,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90돐에 즈음하여 메히꼬인민사회당에서는 경축집회와 사진,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가, 메히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에서는 강연회가, 나이제리아 아키트-룸바고려센터에서는 영화감상회가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기간에 진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전술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위대한 당의 항도따라 백승만을 떨치고있는 주체조선을 소개하는 사진, 도서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들인 《일심단결로 승리떨쳐온 내 조국》, 《당창건기념탑》이 상영되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백전백승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를 모시였기에 조선인민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극악한 암살책동속에서도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 등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은 미제의 핵위협에 대처한 핵억제력강화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이 빛나는 성과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는 공포를 주고 세계진보적인민들에게는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메히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을 강철의 당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뿌리박고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당으로 다지시였다.

조선로동당의 항도따라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으며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암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핵강국, 우주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고있다.

나이제리아 아키트-룸바고려센터의 인사들은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돐, 조선로동당창건 71돐,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90돐에 즈음하여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청년협회산하 볼레지부, 굴랄레지부, 예까지부, 아디스 케테마지부, 아라다지부, 키르코스지부, 리데타지부, 풀레지부를 비롯한 10개의 지부소조들에서 9월 28일과 29일에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굴랄레지부소조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사소한 로선상착오나 실수, 좌절과 동요를 모르고 사회주의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왔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의 계승자이신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은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되였다.

19년전 김정일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으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다.

볼레지부소조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때로부터 70여성상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여왔다. 조선로동당이 인민의 운명을 어떻게 책임지고 보살펴왔는가 하는것은 조선전쟁시기 전쟁에 인적 및 물적력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였지만 막대한 국가부담으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조선에서는 무료교육제가 실시되고있으며 세금제도가 철폐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고있다.

* *

조선로동당창건 71돐과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90돐에 즈음하여 영국, 우간다에서는 엄격토론회가, 기네에서는 독보회가 9월 29일과 10월 1일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행사장들에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전술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의 기치높이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90년전에 결성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의 첫 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E. T》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반제반미투쟁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불패의 핵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최후승리를 반드시 안아오고야말것이다.

영국주체사상연구소소 서기장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오늘 조선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자강력제일주의가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조선혁명은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범아프리카은행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은 세계진보적정당들과 인민들의 삶과 투쟁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보다 강위력한 정치조직으로, 인민의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위용떨쳐갈것이다고 강조하였다.

기네 기프프레스총회사에서 진행된 독보회에서 형형색색인사들 비롯한 발언자들은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칭송하고 정녕 김정일각하는 희세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신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조선혁명의 향도적력량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1돐에 즈음하여 만마련맹련대성발전당 양곤지역위원회 비서 타 윈이 9월 29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1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과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아울러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조선혁명의 위대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정생을 바치신 김일성주석께와 김정일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김일성주석은 인류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지도사상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김정일각하는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당을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이시다.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찬연히 빛나고있다.

나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불멸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이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향도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한다.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근로인민의 혁명적당

불레찐 발행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가 불레찐 10월호를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조선로동당창건 71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지체없이 당을 창건하시고 건군, 건국위업을 실현하신데 대하여 상세히 전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이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된데 대하여, 우리 인민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고 전후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을 끝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온데 대하여 렬거하였다. 불레찐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진보적인류에게 침략과 굴종을 반대하여 투쟁할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민족은 필승불패한다는 진리를 깊이 새겨주고있다. 하기에 세계 많은 나라에서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조선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끈질긴 군사적위협과 경제봉쇄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특히 김정은각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 *

조선로동당창건 71돐에 즈음하여 민주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9월 30일 불레찐을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이 새겨진 마치와 낫과 붓은 굳게 단결된 인민대중을 상징하고있다.

그것은 또한 조선로동당이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모든 활동을 진행하는 당이라는것을 반영하고있다.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혁명적당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였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시고 이끌어오신 조선로동당은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김일성주석의 당으로 다지시였다.

김정일각하의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력사의 온갖 풍파를 이겨내며 승리적으로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조선식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

조선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사무라이후예들의 어리석은 망동

최근 일본당국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미군에 탄약을 제공한다는것을 골자로 하는 물품로력호상제공협정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1996년에 일본과 미국이 효력을 발생시킨 물품로력호상제공협정은 여러차례 개정되였다. 협정은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탄약제공을 유사시에만 하는것으로 해놓고있었다. 하지만 일본당국은 지난해에 성립된 안전보장관련법에 기초하여 대미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에서 협정을 또다시 개정하고 그 내용에 유사시가 아닌 정시에도 《자위대》가 미군에 탄약을 제공하는것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또한 전투행동을 위해 발진준비중에 있는 미군전투기에 대한 급유를 진행한다는것도 포아박아넣었다.

한편 일본반동들은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신형요격미싸일의 시험을 10월에 하와이해상에서 진행하려 하고있다. 우리의 탄도레트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하였다고 하는 신형요격미싸일은 현재 《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싸일의 개량형으로서 미국과 일본이 2006년부터 개발을 시작한것이라고 한다. 일본방위성은 개량형미싸일의 본격확보를 위해 다음해 예산에 147억¥을 포함시킬것을 예견하고있다.

상전을 등에 업고 조선반도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사무라이후예들의 어리석은 망동이다.

카소로운것은 개정안에 서명한 일본외상이 《일미동맹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협정이다.》라고 궤변친것이다. 개정안은 전쟁억제력과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철두철미 침략을 위한것이다.

일본당국자들은 지금까지 미국에 적극 추종하면서도 저들이 전쟁에 말려드는 일이 없을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떠들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황당무계한 수작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일본당국의 물품로력호상제공협정개정안 서명놀음은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에 적극 추종하는 방법으로 해외침략을 실현하려는 범죄적야망의 발로이다. 일본반동들은 앞으로 기회가 조성되면 내외가 전쟁법이라고 규탄하는 안전보장관련법과 새로 개정한 물품로력호상제공협정에 따라 《자위대》를 해외침략에 내몰려 하고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오늘 일본반동들은 전범국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전쟁에 뻐젓이 뛰어들려 하고있다.

그 첫 대상은 우리 나라이다. 일본은 지난 세기처럼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그를 발판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망상이다. 미국의 침략책동에 추종하면서도 무사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것이다. 군국화와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은 일본인민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재난만을 가져다주게 될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침략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힘이 있다. 세계는 우리가 적대세력이 동지를 틀고있는 곳이라면 이 행성의 그 어디에 있든 순간에 불마당질해버릴수 있는 강력한 최첨단공격수단들을 가지고있다는데 대해 공인하고있다.

침략지원싸, 백년숙적에 대한 우리 민족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치솟는 적개심, 불타는 보복열기는 하늘끝에 닿았다.

조선반도에서 수만리 떨어져있는 대양건너에 있는 미국본토도 조준경안에 넣고있는 우리의 혁명무력이 일본을 타격하는것은 아무런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

우리 군대는 저들의 모든 침략전쟁수단들은 물론 대조선공격 및 병참보급기지들까지 정밀조준타격권안에 잡아넣은지 이미 오래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해치는데 가담하는자들은 물론 그 뒤바라지를 해준자들도 무사할수 없다.

일본반동들은 자국의 정치평론가가 한 말을 다시한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1950년대의 조선전쟁때만 해도 조선은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눈깜빡할 사이에 일본을 괴멸시킬수 있을뿐아니라 하와이, 미국본토까지도 직격파괴할 보복능력을 가지고있다. 일본은 일방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고도 자기는 무사했고 돈벼락을 맞을 정도로 수지가 맞았던 과거의 꿈에서 깨여나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일본당국자들은 초래될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일본인민들은 군국주의부활세력의 위험성을 똑바로 보고 자멸의 길로 줄달음치는 사무라이후예들의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리 현 도

조선의 핵억제력강화를 지지한다

브라질단체 인터네트에 글 게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가 최근 인터네트홈페지에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2006년 조선이 첫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단행하자 온 세계가 들끓었다. 당시 조선의 핵시험성공에서 가장 큰 위기를 느낀것은 조선과의 첨예한 대대결의 당사자인 미국이였다. 2009년 4월 조선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이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게 하였다.

조선은 우주의 평화적리용에 관한 주권국가의 권리를 유린하는 유엔안보리사회에 사죄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그렇지 않는 경우 핵시험을 비롯한 추가적인 모든 자위적조치들을 취할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조선의 선언은 결코 빈말이 아니였다. 그해 5월 25일 조선은 제2차 핵시험을 단행하였다.

미국은 2012년 12월 12일에 조선이 첫 실용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발사하자 저들의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또다시 《강력한 제재》소동을 벌려놓았다. 조선은 이에 대처하여 전면대결전에 진입한다고 선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제3차 핵시험을 단행하였다. 그로부터 한달후인 2013년 3월 조선로동당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함으로써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의지를 천명하였다.

올해 1월에 진행된 첫 수소탄시험으로 조선은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였으며 미국은 보다 큰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게 되였다. 조선은 이미 자기의 타격대상을 공포하였으며 그 최종목표가 다름이닌 미국본토라는것도 숨기지 않고있다. 조선은 얼마전 전략로케트들에 장착할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확인하는 핵탄두폭발시험에서 성공하였다.

조선은 이미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과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 전략잠수함탄도탄수중시험발사 등에서 대성공을 이룩하였다.

이제 남은것은 그 위력을 실전에서 과시하는것뿐이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의 핵무력의 질량적강화는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끊을것이라고 경고

필리핀대통령 로드리고 드테르테가 4일 한 연설에서 자기 나라가 미국과의 관계를 종국적으로 끊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나라의 대외정책을 재검토할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2014년에 맺어진 방위협정을 포함하여 미국과의 현존안보합의들을 검토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에서 경찰들의 살인만행에 항의하는 시위 계속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싼 디에고시교외에서 최근 경찰들의 흑인살인만행에 항의하는 시위가 련일 계속되였다. 1일 항의시위에는 수많은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야만적인 흑인살해사건의 주범들을 당장 처벌할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시위로 도로들이 차단되고 교통이 마비되였다.

유엔의 부당한 행위 단죄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5일 자기 나라에 대한 유엔사무총장의 부당한 인권보고서를 배격하였다.

최근 유엔사무총장이 이란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보고서가 믿음성이 없고 무근거한것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는 보고서에는 이란에 제재를 가하고 일정한 정치적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까밝히면서 불명확한 정보에 기초하고있는 유엔의 보고서는 일방적이며 불공정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한편 부룬디정부 대변인이 3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유엔인권리사회의 결의를 배격하였다.

최근 유엔인권리사회가 부룬디의 인권상황을 비난한 결의를 채택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은 편견적인 유엔인권전문가들의 보고서에 기초한 날조이라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그 결의가 부룬디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있으며 결의가 채택된 리면에는 서방의 모략책동이 있다고 폭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되고있는 인권유린왕초

최근 많은 아랍나라들이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감행한 인권유린만행, 반인륜범죄행위들을 대대적으로 폭로규탄해나서고있다. 얼마전 미국회가 9.11사건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킨것이 계기로 되였다.

9.11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미국내에서는 테로분자들의 대다수가 사우디 아라비아인들이였다느니, 그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왕실로부터 재정적후원을 받았다느니 뭐니 하는 여론이 집요하게 나돌았다. 그에 따라 미국회는 이번에 9.11사건피해자유가족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정부나 관리들을 상대로 미국재판소에 손해배상소송을 걸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분노한 아랍나라들에서 미국이 지구상에서 벌린 내정간섭과 침략책동, 그 과정에 저지른 각종 반인륜범죄행위들은 덮어두고 자국 희생자들의 리해관계만 추구하고있다는 비난과 조소가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고있다. 지난 시기 미군이 일본과 월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감행한 인간살륙만행을 보여주는 사진들, 이라크인수감자들을 벌거벗기고 조롱하며 고문하는 사진들과 함께 미국이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반인륜죄악들을 관철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인터네트에 집중적으로 게재되고있다. 또한 잡지들에는 어린 소년이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히로시마에서 핵폭탄이 작렬하는 그림을 보면서 《어느 테로단체가 저런 만행을 저질렀나요?》라고 물어보는것, 미국의 유명한 희극배우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미군의 만행에 대해 고발하면서 그 모든것이 돈때문이였다고 조소하는것과 같은 각종 풍자만화들이 실리고있다. 인간살륙을 도락으로 여기는 인권유린의 왕초이며 반인륜범죄국가인 미국에 대한 응당한 지탄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침공이 어떤 구실밑에 감행되었는가 하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미국은 이 나라들에 《테로행위에 가담하였다.》느니, 《대량살륙무기를 개발하고있다.》느니 하는따위의 터무니없는 죄명을 씌워놓고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는 국가테로, 주권침해행위를 감행하였다.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주권국가들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여러 나라들을 전쟁판으로 만들어놓은 미국은 곳곳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악한 인권유린만행들을 저질렀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1년사이에 미국의 《반테로전》으로 해마다 약 1만 4 000명으로부터 11만명에 달하는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되였다.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때로부터 5년동안에만도 120만 5 000여명의 이라크인들이 살해되고 100만명이 실종되였는데 그중 약 절반이 어린이들이다.

2012년 2월 4일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반테로전》으로 죽은 아프가니스탄민간인수는 2011년 한해동안에만도 3 021명에 달한다.

《테로협의》로 가두어둔 수감자들에 대한 미군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고문만행은 지금도 세상사람들의 치를 떨게 하고있다.

아마도 사람들은 지구상에 현대판오슈빙찜수용소가 있다면 경악할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인류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씌운 나치스분자들의 인간대학살장—오슈빙찜수용소, 이와 다를바 없는 수용소가 21세기인 오늘까지도 미국에 의해 존재하고있다. 그 대표적인 곳의 하나가 관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이다.

언젠가 미국의 한 시민단체는 전직 중앙정보국 관리 등 관계자 수십명과의 회견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여 인권과 인도주의에 관한 국제법을 무참히 유린한 미국의 죄행을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9.11사건이후 미국정보기관들과 미군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관따나모미해군기지 등에 설치한 감옥들에서 수감자들에게 혹독한 고문수법들을 적용하였으며 그 모든 행위들은 정부의 철저한 승인밑에 감행되였다. 이 수용소들이 생겨난이래 770여명이 형기를 치르었는데 그들은 상자안에서 27~30시간을 지내는 고문, 손과 발을 묶어운채 비균형적인 자세로 오래동안 서있는 고문, 목구멍에 더러운 호스를 들이밀어 강제급식시키는 고문 등 말로써는 이루 표현하기 힘든 끔찍한 고문들을 당했다.

미군은 이슬람교도들이 신성시하는 성전인 코란경을 변기에 처넣는가 하면 그들이 기도를 드리려 할 때 주위를 빙빙 돌며 야유적인 춤을 추는 추태를 부리면서 그들의 신앙심과 존엄을 극도로 모독하는 만행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관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은 중세기적인 고문장, 세균실험장, 인권교살장으로서 미국의 범죄적정체를 여지없이 폭로해주는 대명사로 되고있다.

국제대사령은 2005년에 관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을 현대판강제수용소로 락인하였다.

《인권존중》을 제처놓는 저들의 진면모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자 금해맞은 미국집권자는 이 감옥을 폐쇄하겠다고 큰 설수설하기까지 했다.

오늘 지구상에서 미국만큼 《인권옹호》를 열심히 부르짖는 나라는 없다. 그들은 유엔무대에서까지 주제넘게 《국제인권재판》행세를 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저들의 더러운 정체를 절대로 감출수 없다.

미국이야말로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는 음악한 인권유린왕초이다.

인권유린의 원흉인 미국이 《인권옹호》타령을 넘불처럼 외우는데 대해 세계는 코웃음치며 침을 뱉고있다.

본사기자 김 수 진

사회경제적발전을 위한 노력

위성발사계획

이란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한 3개의 국산제위성을 화요일것을 계획하고있다. 4일 이 나라 우주국은 올해 3월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에 감시사명을 지닌 《사리프사트》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이란년도에는 《나히드 1》과 《아미르 카비르》로 명명된 위성들이 발사될것이라고 한다.

철도건설

에티오피아에서 최근 현대적인 철도를 새로 건설하였다. 이 나라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와 지부티의 항구를 련결하는 이 철도는 총길이가 752.7km에 달하며 시속 120km의 렬차운행을 보장할수 있다. 새 철도는 나라의 경제무역을 발전시킬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리용되게 될것이라고 한다.

관광업발전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관광업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3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8월 한달동안에만도 103만명의 관광객들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는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19% 더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이로써 올해에 들어와 8개월동안에 이 나라를 방문한 관광객수는 736만명에 달하였다. 정부는 올해 관광객수를 1 200만명으로 늘일것을 계획하고 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한다.

무역발전조치

르완다가 9월 30일 국가무역촉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위원회는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절차들을 간소화하고 국경무역을 발전시키며 나라의 전반적인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 또한 무역의 현대화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강화하게 된다.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을 반대하여

힘의 사용을 배격

로씨야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가 4일 힘의 방법으로 수리아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배격하였다. 그는 수리아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어떻게 하나 무력사용각본을 실현해보려는 시도가 나타나고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말하였다. 미행정부는 오래전부터 무력사용각본을 성사시키려 하고있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주권침해행위 규탄

사우디 아라비아가 미국의 주권침해행위를 규탄배격하였다. 최근 미국회가 그 무슨 《테로지원국에 맞서는 정의법》이라는것을 통과시킨것과 관련하여 사우디 아라비아 외무성의 한 관리는 그것을 수백년동안 국제관계를 지배해온 주권불가침원칙을 해치는 행위로 락인하였다. 모든 나라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그 《법》은 많은 나라들이 반대하는 매우 위험천만한것이라고 그는 경고하였다.

내정간섭의 구실로 락인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1일 자기 나라에 대한 유럽동맹의 간섭책동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유럽동맹의 한 관리가 이란의 인권문제를 놓고 시비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자기 나라 내정에 대한 란폭한 간섭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인권문제는 내정간섭의 구실로 리용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그것은 낡은 국제질서를 회복하려는 어리석은 시도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61165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말소등록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